

민주당 총선 컷오프 '개혁 공천' 시험대

광주·전남 2월 5일 발표... 이재명 대표 측근 챙기기 땀 총선 어려워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 축감·공천 배제 후 탈당·신당행 여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 컷오프(공천 배제)를 앞두고 '개혁 공천'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참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만큼, 그 첫 시험대가 되는 컷오프 과정에 '공정'과 '개혁' 이미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음달 5일부터 발표 예정인 컷오프를 통해 개혁 공천의 첫 단추를 채울지 여부와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등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또 컷오프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추가 탈당과 신당 합류가 뒤따를지도 관심사다.

◇'공천'·'사천' 시험무대= 민주당은 앞서 컷오프의 중요 기준점이 되는 적합도 조사와 광주·전남 지역 실사를 마쳤다. 이어 오는 31일~2월5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컷오프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2월 2일 각 지역구별로 후보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월5일 컷오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40%)가 이미 마무리됐고, 정체성(15%), 당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0%)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진행돼 앞으로 예정된 후보 면접이 민주당 후보 공천을 위한 1차 관문의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컷오프 과정에서의 '어드밴티지'가 부여될 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후보 경선은 지역구 특성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경선에 앞서 특정인을 사전에 컷오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인 경선이나 3인 경선 선거구로 정할 수 있어서다. 컷오프를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위한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공관위 구성부터 진이재명 계를 살려주기 위한 것'이며, 컷오프를 통해 이를 현실화 할 것'이라는 관측과 '당 대표의 의지를 전혀 공관위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친문계 인사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친문과 친문계 인사 등 공천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전 논란'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이 컷오프 과정에 스스로 특정한 쟁점에 몰두한다면 공천 개혁은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고,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컷오프 여부=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 명단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2월5일 공천 배제 발표에 맞춰 현역 하위 의원 통보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후보자 면접이 끝나면 후보자 종합심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경선, 단수, 전략공천 지역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하위 20% 의원은 31명"이라며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2월 초순 정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은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경선 득표율의 20~30%까지 감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후보자 여성·신인·청년일 경우 15~25%의 가산을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이들과 경쟁한다면 최대 55%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경선 의미가 없는 셈이다.

공교롭게 하위 20% 통보 시점이 컷오프 심사 발표 기간과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컷오프에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돌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상 현역이 도전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당 평가에서 유리한 구조다"면서 "하지만 몇몇 지역구에서 도전자의 추적이 매서워 현역 컷오프 대상자가 과거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컷오프 반발, 탈당·신당행은? 공천 배제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통상 민주당은 지방선거·총선 컷오프 당사자의 탈당이 잦았고, 경선 과정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사전에 당을 나온 뒤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도 흔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7곳에서 무소속 단체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발 제3지대' 탓에 탈당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신들이 탈당 후 3지대에서 창당과 합당 등을 통해 이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컷오프에 반발해 당을 나가도 행선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한 정치인이 생겨난다면 광주·전남에서도 자연스럽게 '3지대' 후보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고심하며 '경선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예정된 경선 일정을 소화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편, 컷오프 이후에도 '재심' 등을 통해 후보 자격을 되찾는 '부활' 과정도 흥미진진한 정치 이벤트다. 과거 단수 공천 등이 지역 정서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심사 등이 문제가 돼 컷오프 이후에도 재심을 통해 기사화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원앙의 기지개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영랑의 날씨가 이어진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에서 원앙들이 날갯짓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직무 정지

금품 수수 관련 검찰 조사...스프링캠프 앞두고 '초비상'

KIA 타이거즈 김종국(사진) 감독이 금품 수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관련기사 18면>

KIA가 28일 "김종국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확인했다. 27일 김종국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며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국 감독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가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단장의 주거지 등 2~3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김 감독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A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스프링캠프를 앞둔 KIA에 '초비상'



이 걸렸다. KIA는 오는 2월 1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30일 선수단 출발에 앞서 29일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미리 캔버라로 떠나 캠프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선수단을 이끌 김종국 감독이 직무 정지되면서 1군 스프링캠프는 진갑용 수석코치가 지휘한다.

KIA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김종국 감독의 최종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 나흘만에 또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가능성

우리 군이 28일 오전 8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이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수중인지, 육상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 역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라는 장

소를 고려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BM)을 쏘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2일 신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흥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밀집한 신포 일대 해상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서울 초등학교들이 강진에 온 까닭은? ▶7면
KIA 호주 전지훈련 캠프 뒤송송한 출국길 ▶18면
동네책방 나들이 - 이것은 서점이다 ▶22면

Mercedes-Benz Certified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차 체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 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 (도천동)